

대한민국 기상청의 꿈,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, 기상·기후 전문가로서 기상청과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은?

유희동 전 기상청장

학력

2003, Ph.D., Meteorology, University of Oklahoma
1988, M.S., Astro and Atmospheric Sciences, Yonsei University
1986, B.S., Astro and Atmospheric Sciences, Yonsei University



경력

2022-2024, 기상청장
2021-2022, 기상청 차장
2020-2021, 기상청 기획조정관
2019-2020, 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장
2017-2018, 기상청 예보국장
2017, 기상청 관측기반국장
2015-2017,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
2014-2015, 기상청 기후과학국장
2013-2014,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겸임교수
2006-2013, 기상청 예보국

전문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연대 대학원생들에게 기상청의 현재와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상청의 미래에 관해 얘기한다. 세계기상기구 195개 회원국 중 기상청 현재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, 기상청 동료·동지들이 갖고 있는 기상청의 꿈에 대해 알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어려운 점에 관해 설명한다.

이와 함께 이 시대의 대표 화두인 '기후변화', '기후위기'에 관해 기상·기후 전문가로서 반드시 살피고 고민해야 할 주제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. 궁극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학문적, 실용적 차원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점을 만들고자 한다.